첫 눈 내리는 날 '冬天'으로 떠났다

미당 서정주의 생애

국화 옆에서 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국 시단의 거목 미당 서정주 시인이 작년 12월 24일 타개했다. 폐렴 악화로 이날 새벽부터 혼수상태에 빠진 미당은 고령으로 인한 노환까지 겹쳐 끝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28일 고향 선영에 묻혔다. 향년 85세.

미당은 1915년 5월 18일(음력) 전북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질마재 마을에서 태어났다. 고향에서 서당과 초등학교를 마친 뒤 서울 중앙고보에 들어갔으나 광주학생운동 소식을 듣고 시위를 주도하다 퇴학당했다. 이후 빈민촌에 들어가 넝마주이 노릇을 하는 등 떠돌다가 석천 박한영 스님을 만나면서 지금의 안암동 개운사 뒤편 대원암에

한국인 의식 밑바탕 시어로 녹인 국민시인

박한영 스님과 만남 '불교적 세계관' 형성

서 〈능엄경〉 등 불교경전을 배웠다. 스님은 자신이 교장으로 있던 중앙불교전문학교(현 동국대)에 입학시켰고, 불교적 세계관에 바탕한 윤회설에의 경도, 절대 영원에로의 회귀 욕망 등으로 말해지는 미당 시의 전반적인 기조는 바로 여기서 싹을 틔우게 된다.

미당은 1935년 '시건설'이란 잡지에 '스물세햇동안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다'로 널리 알려진 시 '자화상'을 발표함으로써 시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시적 여정의 본격적인 시작은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벽'이 당선되면서부터다. 그 해말 김달진, 김동리, 오장환 등과 함께 동인지 '시인부락'을 펴내면서 본격적인 시작활동을 했다.

평생 1천여 편의 시를 남긴 미당의 시세계를 한마디에 가두기에는, 미당이 보여준 상상세계의 오지랖은 크고도 넓다. 미당의 시는 억눌린 정신의 아픔을 노래하는 관능적인 초기시서부터 신화 정신과 불교적 달관에 이르는 후기시까지 다양한 편력을 보여준다. 신라와 불교의 윤회전생, 그리고 민가에 떠도는 온갖 민화와 설화들을 예두르는 그의 시적 방황, 혹은 정신사적 편력은 한국인의 정서에 떠올라 있는 생사관, 이승과 저승을 한데 어우른다.

30대까지만 해도 매력에 지나지 않았던 불교는 40대를 지나면서 미당의 작품 깊숙히 천착하며 문학적 절정기를 일군다. 〈신라초〉에서 시작된 생명에의 근원적인 탐구 노력은 신라의 불교적 세계 천착으로 이어지며 특히 불교적 윤회에 모든 것을 위치지오려는 의지를 뚜렷이 보여준다. 시집 〈동천〉에 이르면 이러한 불교적 윤회사상이 신라 천착에서 벗어나 좀 더 보편적인 신앙의 체계를 이루게 된다. 마지막 절정기 작품 〈질마재 신화〉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인의 의식 저변에 깔려 있는 신화적 원형을 살핀다.

미당은 흔히 '시의 정부'로 불린다. 시에 관한 한 거의 모든 시인이 미당의 영향권에 들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미당에게도 늘 따라 다니는 '덫'이 있다. 일제말 친일잡지인 '국민문학' 편집일을 보면서 친일시나 종군기를 썼던 일은 설사 당시로서는 대세였다 할지라도 씻을 수 없는 흠집을 남겼다. 80년대 군부정권에 대한 찬양 발언 등도 그를 아끼는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97년 11월 남현동 예술인 마을에서 마지막 시혼을 불태우던 무렵의 미당 서정주 선생. <한국일보자료사진>

서정주 시인 약력

△1915년 전북 고창 출생
△1936년 중앙불교전문학교 입학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김동리, 오장환, 이용희 등과 '시인부락' 동인 결성
△1941년 첫 시집 〈화사집〉 출간
△1954년 예술원 회원
△1960년 동국대 교수
△1971년 현대시인협회 이사장
△1972년 불교문학가협회 회장
△1977년 한국문인협회 회장
△1991년 〈미당 서정주 시전집〉(전 2권) 출간
△1997년 시집 〈80 소년 떠돌이의 시〉 출간
△2000년 12월 24일 폐렴과 노환으로 별세

윤회적 상상력 현대시사 '최고봉'

서정주의 詩세계

서정주의 시적 성취에 있어 가장 뛰어난 대목은 불교적 세계인식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신라초〉(1960)와 〈동천〉(1968)무렵의 작품들이다. 1936년 시단 데뷔 무렵의 '생명현실을 격정의 육성으로 노래하던 시세계'에서 자연과 인간이 서로 조화로운 세계를 구성한다는 중기 시 세계를 거쳐 도달한 이 시 세계는 아마도 가장 압축되고 율림 높은 서정주만의 세계임 것이다. 그래서 서정주를 가장 서정주답게 만든 시 세계라면, 이 불교적 세계인식을 기반으로 한 1960년대 무렵의 것들을 손꼽아야 할 터이다.

홍신선
동국대 교수
국어국문학과

그러면 이 시기 서정주 시에 나타나고 있는 불교적 세계인식은 어떤 것인가. 이 시기 서정주에게 있어 세계는 일체 생명있는 것이나 사물들이 모두 통 · 공시적 차원에 있어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전체상의 것이었다. 그 유기적 관계란 삼라만상 모든 것이 서로 인연과 윤회전생을 통하여 얽혀 있는 관계다. 또한 그 얽혀 있는 양상도 상하 수직의 관계가 아닌 나와 너같은 피차의 수평관계를 띤 것이었다. 다르게 말하자면, 대기와 햇볕 그리고 동식물에 인간이 하나로 어울린다는 세계이해이며 조금 과장하자면 일체 모든 사물이 우주적 인연으로 맺어져 있다는 상상인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시인 서정주는 여기서 삶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란 단순히 지금 이곳의 현세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생과 내생이란 시공을 함께 사는 사멸이 없는 존재들이라고 인식한다. 결국 이와 같은 삶에 대한 인식은 죽음 뒤의 사후세계마저 형식을 달리한 삶의 일환으로 이해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면 서정주는 이와 같은 세계인식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가. 일찍이, 서정주는 자신의 이미지 생산원리를 초현실주의와 흡사한 것으로 설명한 적이 있었다. 곧, 초현실주의의 절연(絶緣)의 원리와 비슷하게 불교의 연기나 윤회전생의 사고를 바탕에 깔고 이미지와 이미지의 돌연한 연결을 한다는 설명이 그것이다. 그는 이와 같은 돌연한 이미지 연결을 은유의 풍토라고까지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서정주 나름의 독특한 불교적 상상력과 세계인식은 그의 시적 도정에 있어서도 특이한 미학을 성취한 것이지만 우리 현대시사에 있어서도 전무후무한 일로 평가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서정주의 시학이 다시 '질마재의 신화'로 대표되는 후기 신화적 상상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5번째 시집 〈동천〉이후 활발하게 쏟아져 나온 열 권의 시집들은 바로 이 같은 상상력과 세계인식을 빼놓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아무튼, 구한말의 큰스님 박한영을 만나 불교에 뜻을 두게 된 이래 서정주는 그의 생애 내내 불교적 상상력을 통한 독특한 시학을 성취하였다. 그러나, 서정주는 이제 빌어 입었던 현세 육신의 의복을 벗고 작품 '내 영원은'에서 말한 그대로 '달빛 라일락의 빛과 향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현대시에게 그가 쥐어 주고 간 찬연한 꽃다발을 받을 아이는 지금 또 어디쯤 오고 있는 것일까. 선생님, 부디 극락왕생하소서.

2001 辛巳年

불교와 뱀

"낮은 곳에서 모든것 본다"

법화경 "뱀은 유혹 - 애욕" 다산 · 풍요 · 윤회 등 상징

신사년(辛巳年). 다시 말해 '뱀'의 해다. 열두 가지 띠동물이 있지만 뱀만큼 극단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는 동물도 없다.

우리 풍습에서 뱀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속담에도 "밤에 피리나 휘파람을 불면 뱀이 온다"라는 말이 있는데 뱀을 혐오 대상으로 그리고 있다. "실뱀 한 마리가 온 바다를 흐리게 한다" "구멍에 든 뱀 길이를 모른다"는 말 역시 부정적 인상을 풍긴다.

불경에서도 뱀은 애욕이나 유혹을 상징한다. 〈법화경〉 등을 보면 "뱀은 유혹이요 애욕이다. 그는 제 몸을 그냥 드러내는 게 아니라 꽃나무 뿌리 밑에 숨어서 사람을 미혹시킨다" "뱀은 악업이 깊은 동물이라 그의 일생이 대단히 괴롭다"는 구절이 나온다. 경전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비바사론〉에는 8대 지옥에 독사지옥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으로 뱀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런 내용은 특히 제주도 무속신화에 많이 나타나는데, 뱀신인 부군 신령이 깊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모셨더니 금방 부자가 되었다든지, 부군 신령이 달아나자 그 웅크렸던 곳의 흙을 가져다 모셨는데도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할 정도다.

우리 사찰에는 십이지신상을 그린 벽화가 많이 전한다.

벽화에서 뱀은 무지한 중생을 교육하여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는 관자재보살을 뜻한다. 뱀은 땅을 기어다니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빠짐없이 관찰할 수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과 근기를 모두 살펴 그들의 근기에 맞게 교육하는 것이다. 눈이 있어도 실상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실상을 듣지 못하는 중생들을 교육시킨다는 뜻이 담겨있다. 또 자기 꼬리를 입에 물고 있는 뱀 그림은 윤회를 상징하기도 한다.

권형진 기자

'법화경 언해' 역주본 출간

"한글발달사 연구자료"

한글 초기 문헌인 〈묘법연화경언해〉(이하 '법화경언해') 7권 7책 중 첫 책의 역주본이 최근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나왔다.

동국대 중앙도서관에 있는 원본을 토대로 동국대 김영배 교수가 현대 한글로 번역하고 설명을 붙였다.

〈법화경언해〉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조선 세조 9년(1463) 불교경전을 번역하던 간경도감에서 〈법화경〉을 7권 7책으로 완역한 것으로 초기 한글 및 한국어 발달사 연구에 대단히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법화경언해〉는 중국 요진(姚秦)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한문으로 번역한 〈묘법연화경〉을 송나라 때

계환 스님이 요점을 해설하고 명나라 일여 스님이 주석을 단 집주본(集註本)을 세조가 토씨를 달고 간경도감에서 번역을 붙여 언문(한글)으로 완역한 다음 목판으로 찍어낸 것이다.

언해본 간행 연대는 〈세조실록〉 1463년 9월 9일 기록에 "간경도감에서 새로 간행한 〈법화경〉을 바쳤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 때였으리라 추정된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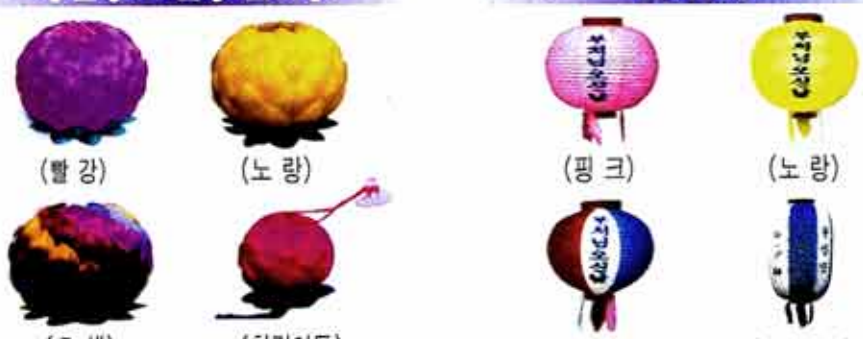
세천년의 발원 - 온 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만월등)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이 있습니다.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팔모주름등

(빨 강) (핑 크) (노 랑) (연 두) 보관형태 (팔모주름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만 월 등



(빨 강) (노 랑) (핑 크) (노 랑)
(오 색) (차걸이등) (오 색) (만월장등)

연꽃잎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활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슬기샘 慧泉 박물관 건립 기금 마련 불사

석혜천「釋慧泉」
「진리로 만나는 한마음경」저자
· 깨달음이는 부처님 말씀
· 목탁이야기 세세이 법문집
· 동림 동문회 회원
· 전통 문화각 연구 소장
· 다담불교 법다선원 운영
· 법륜선화 선원장상실장
· 선화명상가 묵란화가
1.하늘춤전 2.변상문화전
3.부처보살전 4.선 문화전
5.노랑심법전 6.학변상도전
7.동경도쿄와 초대전
8.동경대전초대작전
· 슬기샘 박물관 건립추진

봉운불사기획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신화동 29번지
전 화 032)884-9332
FAX 032)884-9333
온라인 국민은행 예금주 찬승희 175-25-0001-318
위 변상도는 지작진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한 복사 도용 판매를 금합니다.

○위 수익금은 슬기샘 박물관 건립 기금에 쓰여집니다.

地鶴堂 혜천스님의 원력이 담긴 세계최초의 선물상(禪物相) 화두 수행에 결정체인 복덕행 방편으로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하는 학 변상도 시리즈 친필 선서화 특별 보급안내!
※ 각 사암에서는 불사의 방편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복덕심학 신년대문설원 복덕성취기원
2. 부부심학 수명장수 부부화합 소원성취기원
3. 사업성학 학덕구족 영업번창 사업성취
4. 상무선학 이사 여행 안전운행기원
5. 기내백신불원지학 업장소멸 총명독서 주통소통기원
6. 음향수학 남녀결합화합 복덕행운기원
7. 재능성학 수명장수 재능개발 소원성취기원
8. 일원심학 학업소원성취 시험합격기원
9. 상무선학 사업 명예 진학 계약성취기원
10. 입상재물학 수명 복덕장수 입상재소물원
11. 중상재물학 수명 복덕장수 부귀상재소물원
12. 출상재물학 수명복덕장수 출상재소물원
13.병고멸학
14.동심수학
15.칠성무학
16.인연성학
17.관재멸학
18.일심동학
19.선정관학
20.무사고학
21.퇴마기학
22.방생원학
23.거북귀학
24.상외50종

· 특별주문제작 연화복덕학의 가족행운학을 주문으로 가족수에따라 학의수를 맞추어 제작하여 드립니다

· 심달마도의 · 춘대달마도 · 수심달마도 · 무심달마도 · 갈달달마도 · 원행달마도

· 일월성신칠성만호도 · 호랑이는 옛부터 영리나 시기를 물리치는힘이 있는 것으로 일러짐으며 각시절에는 신신 또는 신선의 시자 혹 도깨의 수호를 맡는다

· 천복용신도 무한한 능력에 최선을 불법을 수호하는 동무중의 하나이며 길상을 준다

무악천마도 주진력에 상징이며 복 천살을 주고 악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전함. 악사여래불에 딸린 12신장중의 하나이다

○ 위 학 변상도 및 수신도는 혜천스님이 참선기도 수행후 직접 그린 작품으로서 다소 규격이 변형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鶴)이란 생부터 자태가 청초하고 고귀하여 신성한 새로 여겨오며 천년만에 푸른색으로 변하여 창학(靑鶴)이 되고 다시 천년이 되면 검은 색으로 변하여 현학(玄鶴)이 되는 장생불사의 새로 알려져 있다. 불가에서는 성인이나 보살의 화신으로서 악을 구축하고 선으로 인도하는 이적을 베푸는 존재로 표상되었으며 주로 법당 인천장이나 백련 높은 곳에서 하늘을 날며 부처님 신변에 잡귀가 나타나지 않게 늘 지키고 있다

鶴變相圖 학변상도 (지역별 각 사암 특별 보급처 문의 요망)
※ 학(鶴)이라는 특수한인 대상에서 기호화 문자화로 변상되어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려는 선화(禪畵)로서 일명 학(鶴)변상도(變相圖)라고 이름 하는 것이다. 학(鶴)이 주는 주관적인 삶에 소망을 이루어주며 객관적으로 자신에게 업장(業障)을 멸(滅)해 줄 수 있다는 상징의 본심인 것이다. 따라서 선 서법적(禪 書法的)에서 보면 진작상형문자(象形象形文字)의 언어라고도 한다.